

GCC산유국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평가

■ GCC산유국들은 2011년 유가상승 및 석유수출 증가로 늘어난 정부수입을 바탕으로 2012-2013년도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지속할 것에 대한 계획을 밝힘.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산유국들은 2011년의 고유가와 석유 수출 증가로 높은 재정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를 달성함.
- GCC국가들은 석유수출을 통한 정부수입을 급여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조금지급 등 자국의 사회 안정화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2-2013년도 예산에서도 공공부문에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계획함.

표 1. GCC 주요 산유국의 석유 및 재정현황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년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석유생산(mb/d)	9.31	10.1	2.57	2.72	2.66	3.01	0.73	0.73
정부수입	51.3	49.8	31.7	32.6	64.5	60.7	40.3	37.9
정부지출	37.2	37.8	26.7	24.3	34.4	36.3	27.9	27.8
재정수지	14.1	12.0	5.0	8.3	30.1	24.4	12.4	10.0
실질 GDP 성장률	7.0	5.0	3.3	3.5	9.9	9.2	14.1	6.5
예산 기준유가	60	73	-	-	60	65	55	65
유가 손익분기점	85	-	80	-	60	-	55	-
석유 / 총수출	85.8	-	33.8	-	92.7	-	51.5	-

주: 정부수입, 정부지출, 재정수지는 GDP대비 %, 기준유가 및 유가 손익분기점은 1배럴 당 유가(달러)

총수출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석유 / 총수출)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천연가스 수출을 포함

자료: OPEC monthly report(2011년도 석유생산은 연평균이며, 2012년도는 4월 기준); EIU country report(정부수입, 정부지출, 재정수지, 실질 GDP성장률, 석유 의존도); MEED(예산 기준유가, 유가 손익분기점)

■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GCC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정부수입 증가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기준유가를 상회하는 선에서의 국제유가가 전망됨에 따라 재정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3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123달러 기록 후, 6월 현재 이보다 하락한 1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으며, EU의 재정위기, 인도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로 대외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음.
- 2012년에도 GCC국가의 재정수지 흑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2011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 확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GCC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및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증대시킴.

- IMF는 GCC국가들의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재정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이며, 다른 지역보다 경제성장을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가에 의해 정부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석유의존도가 높은 GCC산유국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석유수입이 감소할 경우 국가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임.

(손성현 연구원)